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4. 육조의 오도송(하)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때 묻지 않도록 하라

麟龍頭角盡成空  
노도령은 그들과 비슷하지 못했네  
盧老無能較竺子

- 신수

깨달음에 본래 나무 없고  
거울 역시 대가 아니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 일어나리오

- 혜능

후학 남자들이 6조가 의발을 전수 받  
은 이야기를 공안으로 삼은 많은 계송이  
있다. 그 중 두 수만 음미하자.

☞  
그 옛날 황매가 이 뜻을 전하니  
當日黃梅傳意旨  
불법을 아는 이가 갈대같이 많았네  
會佛法人如竹葦  
기린과 용의 두각이 모두가 허사되니

☞  
못 끊고 쇠 자르니 큰 재주는 도리어  
斬釘截鐵大功若拙  
한 마디로 한 사람에게 전하니 불법을  
알지 못하네 一句單提不會佛法  
제 멋대로 앞 지고 꽃이 피나니

儘他花落花開  
봄가을의 춤과 더움을 묻지 않으리  
不問春寒秋熱  
다르다 다르다 別別  
만고의 푸른 못엔 하늘의 달이나라  
萬古碧潭空界月  
- 원오극근<선문염송> 권4, 112책

☞의 계송 1행과 2행에서 '5조가 뜻  
을 전하니 불법을 아는 이가 갈대같이  
많다' 라고 함은 지식이나 좀 더 나아가  
직관지로서의 진리의 구경처, 본래면목  
을 간파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다. 이  
렇게 아는 것은 가능하다. 진리 당처와

신수 · 혜능의 계송 공안 삼아 지은 선시 많아  
진리 당처와 제합하는 경지에 초점  
“만고의 푸른 못엔 하늘의 달이나라”

계합하는 것은 이미 안다는 차원이 아  
니므로 이미 알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것은 단지 알았다 이해한다는 차원일  
뿐, 바로 그것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노호를 아는 것은 허락하지만  
노호와 영회(領會)함은 허락하지 않는

다고 말한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영회  
할 것인가? 4행에서와 같이 '단지 노행  
자가 그들과 다를 뿐' 그 외는 달리 무  
엇이라 표현하겠는가?

☞의 계송은 선문 제일 서라는 <벽암  
록>을 편찬한 원오 극근의 시다.  
이취(理趣)와 선지(禪旨)가 물씬 풍기  
는 계송이다. 1행과 2행에서는 '뛰어난  
견해를 가진 대중이 무수히 많지만 오직  
불법을 해능에게만 전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불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적  
고 있다.

진리의 당처인 본래면목을 영회하는  
표현법을 쓰고 있다. 3행과 4행의 "제  
멋대로 앞 지고 꽃이 피나니/봄가을의 춤  
과 더움을 묻지 않으리"는 불법의 운행  
을 말한 것이다.

자, 여기서의 부지불식간에 피고 지  
는 만물, 봄이다 가을이다를 잊는, 함이  
없는(無功用) 삶. 이것은 일체 만물, 불  
법, 구경의 당처인 본래면목을 인식하  
지 못한 가운데 그럭저럭 산다는 의미  
이다.

마지막 행인 "별별, 만고벽담공계월"  
(別別 萬古碧潭空界月)에서 '다르다 다  
르다'는 세계가 숨기고 있는 진면목에  
대한 제합(契合)이니, 놀랍고 놀라울 뿐  
이다.

그 놀라움을 알고자 하는가? '만고의  
푸른 못, 하늘엔 달, 달 속에 갇힌 푸른  
못'이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선촌 대표

4. 땅두름 죽순전골

아직 날씨가 쌀쌀하지만 3월 21일  
춘분을 맞아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  
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춘곤증도 생  
기고 계절이 바뀌에 따라 몸이 자주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래서 사찰에서는 몸의 기운을 북돋우  
기 위해 봄나물을 이용한 음식을 많  
이 만들어 먹  
습니다.

살려줄 것입니다.  
땅두름은 한의학에서 '독활(獨活)'  
이라고도 하는데, 체력이 약하거나 신  
경쇠약, 정신 및 육체 피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땅두름나무 껍질을  
70%의 알코올에 우린 후 하루 3번  
30~40방울씩 마시면 저혈압이나 신  
경쇠약 등에  
도움이 됩니  
다.

땅두름, 독특한 향입 맛 되살려  
죽순은 장 연동 촉진 변비 해소

오늘 만들어  
볼 땅두름 죽  
순전골은 영양  
이 풍부해 환절기에 약해지기 쉬운 체  
장을 보완해줍니다. 땅두름의 독특한  
향과 말린 죽순의 약한 발효된 듯한  
묵은 맛이 어우러져 잃었던 입맛을 되

켜 변비를 해소하고 이뇨작용으로 신  
장도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한 체내  
노폐물을 빼내어 혈액을 정화시켜줍  
니다.



땅두름 죽순전골

재료: 땅두름, 죽순 말린 것, 두부, 숙주나물, 들깨즙, 된장.

- 1. 땅두름은 살짝 데쳐서 굵은 것은 1/4로 쪼개고 가는 것은 1/2로 쪼갬다.
- 2. 말린 죽순은 4시간 전에 따뜻한 쌀뜨물에 담가두었다가 땅두름과 비슷한 굵기로 찢어놓는다.
- 3. 두부를 노릇노릇하게 기름에 지져 땅두름, 죽순과 비슷한 굵기로 채썰어 둔다.
- 4. 숙주나물은 깨끗이 씻어둔다.
- 5. 먼저 죽순을 된장으로 밑간한 다음 물을 붓고 센불에 끓이다가 약한 불에 은근히 끓여 죽순 맛이 충분히 우려나게 한다.
- 6. 다음으로 땅두름을 넣고 중불에 한소끔 끓이면서 무르게 하고 두부를 넣고 중불로 끓인다. 마지막으로 숙주나물을 넣고 한소끔 끓인다.
- 7. 들깨즙을 넣고 끓이다 된장을 넣고 간을 맞춘다. 단, 들깨즙이 끓어 넘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부끄러움 기록

고은 | 시학 | 1만원



고은은 불교적 상상력과 선적 방법  
으로 시를 쓰는 시인이다. 초기의 실존  
적 허무에서 1970년대 사회적 현실로  
문화의 방향을 전환한 이후, 문화이나  
삶의 탈정치성과 탈사회성에 동의하  
지 않는 시인이다. 그가 한국의 문인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로 유력하게 꼽  
히는 이유 가운데 하  
나가 동양과 불교, 그  
리고 정치적 올바름  
이다. 그의 삶 또한  
극적이다. 1951년 군산 북중학교 미술  
교사 겸 국어교사로 특채되어 교사를  
하다가 군산 금강사원(동국사에 머물  
던 혜초 스님을 만나 출가하여 일초라  
는 법명을 받았다. 1953년에는 효봉  
스님의 제자가 되어 구경행각을 하  
다 안국동 선학원에 들어가서 불교 총무  
원 건부, 전등사 주지, 해인사 교무 및  
주지대리, 불교신문을 창간하고 초대  
주필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시적 대

을 직관하여 순간의 상황을 포괄적 인  
어로 포획하는 창작방법을 구사한다.  
  
웃 한 벌 없이 살아가는  
휴전선 짐승들에게  
달마를 덕보에게  
미안하구나

진짜를 닮고 싶은 '작통인생' 묘사

바람부는 날  
나는 제일모직이라는 걸 입고  
집을 나선다  
  
개들이 악발이로 악발이로 짚어대  
어라  
나 또한 거지이거나 도둑이거나  
그 중의 하나  
  
- '출타' 전문

웃을 입고 사는 사람인 자신이 웃  
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짐승들이나  
마을의 개(덕보)에게 미안하다는 것  
이다. 자신이 거지가 아니면 도둑이  
니 악발이로 짚어달라고 주문한다.  
자신을 짐승의 급수로 맞추거나 거  
지이거나 도둑이라고 자인한다. 그  
의 대부분 시  
에 나타나는  
이러한 상상은  
독자에게 읽기  
의 충격과 정서적 파장을 일으킨다.  
또 그는 시에 비교과서적이고 상식  
모반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여 비약  
의 쾌감을 주기도 한다. 그는 인간  
을 '작통인생'으로 인식하기도 한  
다. 그렇다, 우리는 거개가 작통  
으로 산다. 진짜를 닮고 싶어 하는 작  
통인생인 것이다. 그러면서 진짜로  
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작통인 것  
이다.

작통  
이 날말을  
내 사전에 올리리라  
무섭구나  
나는 누구의 작통이나  
그 누구는  
누구의 작통이나  
밤길 철새  
연달아 가는  
이 상호텍스트의 한 날말을  
내 원시어사전에 꼭 올리리라  
작통은 진짜의 꿈 아니냐 그 지긋지  
긋한 진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냐  
  
- '작통' 부분

향엄당 설산 대선사 49재 안내

일평생 염불수행으로 일상을 삼매하신 향엄당 설산 대선사께서  
2007년 3월 6일 오후 6시 世緣 離盡하시었습니다.

큰 스님의 장례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禮를 올리며 49재 일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무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엄당 설산 대선사 49재 일정

조재	3월 12일 (음 1월 23일)	부산 정토사	오전 11시
2재	3월 19일 (음 2월 1일)	서울 정토사(삼각산)	오전 11시
3재	3월 26일 (음 2월 8일)	서울 도선사(삼각산)	오전 11시
4재	4월 2일 (음 2월 15일)	강원도 건봉사(금강산)	오전 11시
5재	4월 9일 (음 2월 22일)	청도 대각사	오전 11시
6재	4월 16일 (음 2월 29일)	동산불교대학(서울)	오전 11시
7재	4월 23일 (음 3월 7일)	서울 정토사(삼각산)	오전 11시

향엄당 설산 대선사 염불만일회 문도일동 합장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옥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  
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 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계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7474-5349